

##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교과서의 식민성 강화 요인 분석

강 필 규

제주 인화초등학교

### 1. 들어가는 글 : 왜 식민성을 살펴야 하는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외국에 살고 있는 친구와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전 세계의 소식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고, 해외여행,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다른 문화를 접촉하는 기회도 늘고 있다. 이러한 기회의 증가는 우리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던 문화와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계가 우리 생활과 점점 밀접해지면서 문화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한국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이 생소하지 않게 되었고, 한류와 같은 문화 콘텐츠도 다른 문화에 많이 진출하였다. 문화의 교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서로의 좋은 문화를 배우는 장점을 갖는다. 하지만 문화의 만남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 각지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목격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어떤 문화는 우월한 문화로, 어떤 문화는 열등한 문화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깔려있다.

우리 사회는 서구에 대한 식민성과 한 핏줄, 한민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가 결합되어 독특한 사고방식을 형성하였다. 식민성은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문화를 우월한 문화로, 그 밖의 문화는 열등한 문화로 생각하는 잣대로 작용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민족주의는 다른 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발달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성과 민족주의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평가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는 자본주의란 잣대로 우리보다 우수한 문화, 열등한 문화로 배타적인 구분을 짓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문화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문화편견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권력 관계는 현재 발견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식민성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관련이 있다. 공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는 비판의 여지가 없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보편적 진리이며,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교사는 교육내용에 대한 반성보다는 교육내용의 효율적인 전수를 위한 교육방법에 대한 관심이 컸고, 학생은 비판보다는 많은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사회과는 우리의 사회 현상과 세계의 여러 문화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사회과학을 기반으로 한 교과이다. 이는 교육내용 속에 서구 중심적인 내용과 사고가 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초등학교 교육내용이 식민성을 형성시키거나 기존에 주변 환경에 의해 습득했던 식민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과정·교과서 분석을 통해 식민성을 다룬 선행연구를 보면, 주로 탈식민주의적 관점을 활용하여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있었다. 교육과정은 문화에 대하여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식민성이 내면화된다는 주제로 이루어졌다. 김영천(2006)은 한국적 맥락에서 탈식민주의 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기하고, 탈식민주의의 주요 아이디어를 한국 교육과정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홍원표(2010)은 탈식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적합한 인식론적 기반을 탐색하고, 다문화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연구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탈식민주의관점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교과서 속에서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복영(2001)은 탈식민주의이론의 개념을 사회과교육과정에 적용시키고 역사교육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탈식민성을 살펴보고, 탈식민지적 이론의 적용과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조현우(2004)는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세계사 영역에 대한 단원 구성과 내용분석을 통해서 세계사 교육과 우리 교육의 서구중심성을 분석하였다. 김영주(2004)는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기술에 대한 텍스트성 분석을 통해 포스트 식민성의 가능성 파악 및 사회과교육에서 가르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반성을 논했다. 주재홍(2006)은 Said의 오리엔탈리즘을 검토하고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세계사 영역을 분석하여 세계사 교과서가 서구의 세계사 구성틀과 내용들로 서술되어 오리엔탈리즘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하였다. 박철희(2007)는 교과서가 다양한 민족에 대한 서구 중심의 관점을 반영하여 다른 나라의 문화를 단순화하고, 우리와의 역사적 관계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과서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서구의 관점이 내재되어 식민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탈식민주의에서 지배-피지배 관계로 설정된 제 1세계와 제 3세계의 중간에 한국을 위치시킨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다른 연구는 드물다. 그리고 사회과 교육내용에 포함된 식민성의 모습을 다루는 연구는 많지만 교육내용으로 인하여 식민성이 어떻게 강화되는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해소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교과서의 교육내용으로 인해 식민성이 어떻게 강화되는가에 대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I장에서는 문화편견의 기반으로 서 식민성에 대한 고찰을 하겠으며, III장에서는 식민성과 관련된 교과서 분석을 하겠다. 이를 통해 교과서가 식민성 강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다.

## II. 문화편견의 토대로서 식민성

### 1.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식민성의 이중성

우리나라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단일민족의 신화를 오랫동안 가져왔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국민통합을 위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며 민족의 우월감을 고취시켰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서 타문화 구성원에 대한 배타성을 발전시켰다. 이런 배타성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차별하는 행태로 이어졌다(이선영, 2008).

이러한 배타적 민족주의는 식민성과 결합하여 한국인의 독특한 성향을 만들어 냈다. 서구가 가진 문화

권력과 경제력은 한국 사회에 있어 내면화의 대상, 즉 우월한 문화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 사회는 미국이나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막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경제력이 약한 제 3세계 국가들은, 문화마저 열등한 국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선진국 출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후진국 출신의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초고속 경제 성장은 타문화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빠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선진국과 후진국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서구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과 경제적 후진국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은 더욱 강화되었다. 즉 식민성과 민족주의, 그리고 초고속 경제성장이라는 독특한 경험이 타문화를 대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을 형성시킨 원인인 것이다(최현기, 2011).

이 글에서 다루는 식민성은 한국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문화적 조건, 그리고 초고속 경제 성장이라는 특수한 경험의 결합에 의해 창조된 한국인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타문화에 대한 식민화와 피식민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식민화는 한국 사회가 제 1세계 문화에 대해 가지는 열등감으로써, 서구를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서구 중심의 식민성의 내면화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피식민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제 3세계 문화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들에 대해 우월감과 배타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식민성으로 이들을 지배·결합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식민성에 의한 지배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민성에 의해 다른 사회를 지배·결합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일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막연한 우월감으로 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례, 백인들이 지나가면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는 사례 등은 한국 사회의 이중적인 식민성의 양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식민성의 발현은 국가·민족·문화 등의 요소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타파하고 진정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평등하고 상생하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

## 2. 식민성 강화 요소

우리 사회에서 식민성은 상대방이 특정 문화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특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특정 문화권 사람의 개인적 특성과 차이에 상관없이 단지 그 문화권 출신이라는 것에 기인하여 동일한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문화를 대할 때 자동적으로 식민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 문화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문화편견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문화편견의 기반으로 자리한 식민성은 편견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으로 인하여 정당화되고 강화된다. 이러한 가정 하에, 이미나(2008)가 정리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편견의 특징<sup>1)</sup>을 토대로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성이 형성된 이후에는 다른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기존의 정보를 뒤집을 만큼 기발하지 않음

1) 이미나(2008)가 정리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편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만들고 강화하는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 인간은 고정관념을 활성화하는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편견은 사회적 맥락에 의하여 강화된다.

면 주목하지 않는다. 식민성에 대립되는 정보가 제공되더라도 이미 정착한 식민성의 이데올로기를 뒤집지 못한다면 그 정보는 단지 그 문화의 상황적이고 예외적인 모습으로 치부해버린다. 그 예로 백인과 흑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를 생각해보면, 백인은 상황적으로 귀인하고, 반면에 흑인은 기질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식민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하거나, 식민성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식민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식민성과 일치하는 정보를 접하거나 행동을 목격했을 경우, 이를 기존의 식민성을 증명,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활용하며, 식민성을 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면,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그곳 사람들은 비위생적이라던데, 화장실을 가보니 과연 그렇더라'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식민성을 억압을 시키면 편견이 오히려 미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식민성에 더 뚜렷하게 접근하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지시킴으로써 머릿속에 식민성의 모습이 떠오르는 특성이다. 그 예로 "다문화가정 친구들에게 편견 없이 대하라"는 말에서 학생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더라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이 각인되어 버린다.

넷째, 식민성은 문화경제적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대방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강화되며 특히,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되는 소수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식민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가 차별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모순적으로 동남아 문화권 사람들에게 표출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다섯째, 식민성은 규범적 동조가 잘 일어난다.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위하여 사회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따르게 되는데, 식민성도 그 범주에 포함된다. 식민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생활하면 식민성이 강화되고, 식민성이 덜한 지역에서 생활하면 식민성이 약화되는 모습을 띤다.

이러한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들이 교과서에 내재되어 있다면, 교과서 속 교육내용에 의해 식민성은 정당화되고 강화될 것이다. 교과서는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텍스트로서의 이미지가 강하여, 식민성을 정당화·합리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과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다루는 교육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식민성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는데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교육이 이루어지기 이전 사회·문화적으로 식민성이 학생들의 편견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교육내용에 식민성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식민성이 정당화되는데 교과서만큼 좋은 자료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어떠한 교육내용이 식민성을 강화시키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회과 교육내용은 학생의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국가적 측면, 학문·철학적 측면의 요소를 기반으로 선정된다. 각각의 내용체제의 선정기준은 의도적 혹은 무의도적으로 식민성이 강화될 수 있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 내용은 내용체제에 따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의 심리적인 측면은 학생의 흥미와 능력, 실생활의 경험과 관련성이 높은 문제를 주제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교육내용은 타문화에 대한 내용은 다양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복잡한 관계를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식민성이 강화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보가 중립적으로 제시된다고 하더라도, 단면만 보여주는 정보는 그 문화 역시 단편적으로 규정지어, 식민성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국가적 측면의 내용선정은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며, 그 빈도도 많게 될 것이다. 반대로 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 대해서는 내용도 단순할 것이며, 그 빈도도 낮을 것

이다. 그리고 사회·국가의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내용선정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 및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식민성이 교과서 내용에 수록되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식민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식민성을 억압하는 내용의 포함되어 오히려 식민성을 각인시킬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문·철학적 측면은 사회과교육 자체가 근대 서구의 사회 과학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식민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내용과 탐구방법 역시 근대성에 기초한 사회 과학의 틀을 따르고 있다. 이는 서구 중심의 문화 권력에 대한 종속성으로 나타나고, 이는 서구에 대한 식민성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 선정기준에 의하여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를 내재하거나 타문화의 우열을 내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교과서에 포함된다. 교과서에 포함된 내용 중 식민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의 제시 또는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식민성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교육내용 속 내재된 식민성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 Ⅲ. 식민성 강화 관련 교과서 내용 분석

#### 1. 분석대상 및 교과서 분석기준

교과서 분석대상은 3~6학년 1, 2학기 사회 교과서 8권의 내용에서 '세계', '타문화', '타인종'을 다룬 내용으로 선정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에게 식민성으로 강화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그 내용이 어떻게 식민성 강화에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초등학교 교육내용은 환경확대법에 의하여 6학년에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전 연구까지는 주로 6학년 세계를 다룬 단원에 한정하여 교과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식민성은 세계 내용을 많이 다루는 6학년의 교육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전학년에 걸쳐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3~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식민성의 강화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찾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과서 분석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사회과의 지식 영역에 따른 분류이다. 지식 영역은 지리, 역사, 일반 사회로 나누어져 있으나 일반 사회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겠다. 다음은 내용체제 따른 분석이다. 분석의 기준은 내용 선정 기준인 1. 학생의 심리적 측면, 2. 사회·국가적 측면, 3. 학문·철학적 측면으로 분류하겠다. 그리고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에 따른 분석을 하겠다. 기준은 다섯 가지로 앞 장에서 다루었던 a. 단편적인 정보로 인한 식민성의 강화, b.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c. 억압·각인 효과, d. 이중적 편견·차별, e. 규범적 동조로 설정하였다.

#### 2.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

교과서 내용 분석은 각 교과서에서 식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교과서 기술, 사진 등)을 선정하여 분석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내용을 기준 별로 해석하여 보았다. 교과서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33> 식민성 강화 관련 교과서 내용분석 결과

분석 기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지식 영역	지리	3			24
	역사			12	
	정치				2
	경제		1		8
	사회	3	8		6
	문화	12	1		6
	통합 내용				6
내용 선정 기준	학생 심리적 측면	18			15
	사회 국가적 측면		10	1	20
	학문 철학적 측면			12	17
식민성 강화 요소	단편적인 정보로 인한 식민성의 강화	10	4	1	36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4	1	3	6
	억압-각인 효과	2	4		4
	이종적 편견·차별		3	2	5
	규범적 동조		1	3	1
	기타	2	1	3	4

지식 영역의 분석을 보면, 주로 각 학년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영역에 의해 많이 나누어졌다. 3, 4학년에서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을 다루다 보니 주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식민성 강화 관련 내용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5학년에서는 역사 영역에서 우리와 교류가 있던 문화권이 등장하였다. 내용은 주로 배타적 민족주의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 6학년 교육 내용에서는 주로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제시되었다.

내용 선정 기준의 분석을 살펴보면, 3학년에서는 학생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학생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고, 그 내용 역시 학생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많이 생략된 채 간단한 현상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4학년에서는 타문화 이해와 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사회 국가적 요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5학년에서는 주로 역사 내용을 다루다 보니 역사학적 가치와 내용이 내재되어 있었다. 6학년의 교육내용은 세계를 증점적으로 다루는 단원인 만큼 모든 측면에서 골고루 포함되어 나타났다.

식민성 강화 요소에 따른 분석을 보면, 단편적인 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식민성의 강화 요소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접근하지 않다보니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 서구의 문화가 우수하다고 당연시 여겨 발생하는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요소가 많았다. 이 역시 초등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왜 서구 문화가 우수한지에 대한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분석해 본 결과, 3학년 교과서에서는 학생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단편적인 정보가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 식민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4학년 교과서에서는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타문화에 대하여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었다. 이는 식민성을 억압을 시켜 오히려 소외되고 차별받는 타문화의 이미지가 미리 머릿

속에 각인되어 식민성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5학년 교과서에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타문화에 대한 배타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며, 개화기 때 서양 문물의 도입과 근대화를 연결 지음으로써 서구의 우수성이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6학년에서는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리학의 내용 속에 녹아있는 서구 중심적 사고가 은연중에 전달되고 있었다. 그리고 근대화된 서구 문화와 근대화되지 않은 제 3세계 문화의 모습이 사진과 교과서 기술을 통해 대비되어 이중적인 식민성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내용이 각 학년 학생들에게 어떻게 식민성이 강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학기별 하나의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그 교육내용이 갖는 식민성의 문제점과 식민성을 강화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서술해 보았다.

<3학년 1학기 3-1.의식주 생활의 변화, p89>

**“서양 옷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한복 대신 서양 옷을 입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양복, 셔츠, 블라우스, 스커트, 청바지 등을 즐겨 입습니다. 또한 한복을 입기 편하게 만들어서 입기도 합니다.”**

- 지식영역 : 문화
- 내용선정기준 : 1. 학생의 심리적 측면
-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 : b.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이 서술은 서양 중심의 근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으로서 서양 옷이 들어옴에 따라 자연스럽게 한복이 대체된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왜 한복을 입던 사람들이 서양 옷을 입기 시작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덧붙여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서양 옷은 발전된 문화의 실용적이며 편안한 옷으로, 한복은 전통적이며 비실용적인 옷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서양 옷, 양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내재된 단어라 볼 수 있다. 정장, 수트 등 그 옷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 존재함에도 서양 옷으로 사용함에 따라 서양은 근대적이고 발전적이며 본보기를 삼아서 변화해야 할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 또한 다음 활동으로 주생활 모습에서도 “오늘날 우리는 주로 양복에서 생활합니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 ‘양복’이란 단어 역시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어 식민성을 강화시키며, 학생들 인식 속에 내재된 식민성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3학년 2학기 2-4.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pp.72-73>

**“미래의 이동과 의사소통 모습을 상상하여 표현해 봅시다. ...열차를 탄 채 바다를 건널 수는 없을까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바다 밑에는 열차가 다니는 터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남쪽 땅에서 제주도까지 터널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 지식영역 : 사회
- 내용선정기준 : 1. 학생의 심리적 측면

-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 : b.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이 단원에서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동 수단이 계속 변화하고 생활 모습도 달라지고 있음을 통해 미래의 모습에 대하여 상상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사이 도버해협을 건너는 열차 ‘유로스타’를 예로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열차가 만약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제주도에 생긴다는 가정을 통해 미래의 모습을 유추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들은 유럽에서는 과학기술이 뛰어나 바닷속 터널을 지나는 열차를 보유하고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 그런 열차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해저터널이 없는 것은 과학기술의 이유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건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미래의 이동 수단의 예로 유럽의 해저터널과 그 열차를 소개한다는 것은 서구 중심의 식민성을 정당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학년 1학기 3-1.도움을 주고받는 자매결연, p.89>



⊙ 전통 문화 교류(과천시와 캐나다)



⊙ 스포츠 교류(서울 송파구와 뉴질랜드)

<그림 1> 문화 교류의 예시

- 지식영역 : 사회, 문화
- 내용선정기준 : 2. 사회국가적 측면
-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 : b.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타문화와의 교류란 소재로 나오는 사진, 삽화, 기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례로서 문화의 세계화를 우리 전통문화가 서구 문화로 전파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의 문화를 우수한 문화권의 서양인들이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문화가 우수하다는 식의 접근이다. 이 논리의 바탕에는 서양 문화의 우수성이 깔려있다. 서양 문화가 우수하다는 전제하에 서양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게 하고 웃고, 박수치고, 진지한 모습의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문화도 서양 사람들이 향유할 만큼 우수하다고 여기게 한다. 서양 문화로 진출을 통해 우리 문화가 세계화를 이루었으며, 그만큼 우리 문화의 역량이 뛰어난을 인정하게 하는 장치로써 의도가 엿보인다.

<4학년 2학기 3-5.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의 권리 p.129>



우리 사회는 생긴 모습이나 생활 방식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수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 지식영역 : 사회, 문화
- 내용선정기준 : 2. 사회·국가적 측면
-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 : c. 억압·각인 효과, d. 이중적 편견·차별

이 단원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하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한 단원이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없이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으니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오히려 한국인의 이중적인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지 않음에 따라 학생들은 차별을 받는 이유가 상황적으로 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적으로 귀인해버린다. 그 결과, 원래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서구 중심의 식민성이 우리 중심으로 제 3세계를 대상으로 한 식민성으로 변질되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등을 사회적 소수자로 정해버림으로써, 그들은 보호해야 할 존재로 각인이 되어 버린다.

<5학년 1학기 2.5.고려의 과학과 기술 p.90>

“고려는 서양보다 약 150년 앞서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하였다고 ... 현재 남아 있는 인쇄된 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고려 시대 흥덕사에서 만들어진 《직지심체요절》이다.

《직지심체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선다.”

- 지식영역 : 역사
- 내용선정기준 : 2. 사회·국가적 측면

-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 : b.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역사 영역에서도 서양의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루어졌다.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78년이나 앞선다'를 강조하면서 우수한 서양 문화보다도 78년이란 시간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구텐베르크 금속활자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도 그만큼 우수하다는 것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역시 식민성을 정당화하고,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5학년 2학기 2.3.근대 문물의 수용과 일상생활의 변화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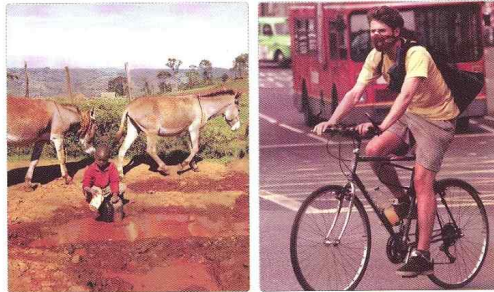
**“외국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서양 문물이 들어와 생활 모습이 변하였다. … 이 시기 도시에는 서양식 건축물과 일본식 주택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건축물은 …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다.”**

- 지식영역 : 역사
- 내용선정기준 : 1. 학생 심리적 측면
-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 : a. 단편적인 정보로 인한 식민성 강화 b.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이 단원에서는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한 결과 생활수준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당시 우리 문화와 서양 문화의 발전 정도의 차이로 인식할 수 있다. 전근대적인 우리 문화에 비해 근대적인 서양 문화는 오늘날 우리 문화 수준과 비교할 정도로 발전했었다는 이미지를 갖게 한다. 그 결과, 문화의 발전 정도를 시간으로 보았을 때 서양은 우리의 미래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발전된 서양 문화로 인하여 우리도 지금의 모습까지 될 수 있었다는 서구 중심의 이데올로기는 탈식민주의 담론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식민성의 모습이다.

<6학년 1학기 3-2.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p.112>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1인당 자원의 이용량이 매우 적으며,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달러만으로 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은 1인당 자원의 이용량이 훨씬 많다.”**



○ 경제 발전이 필요한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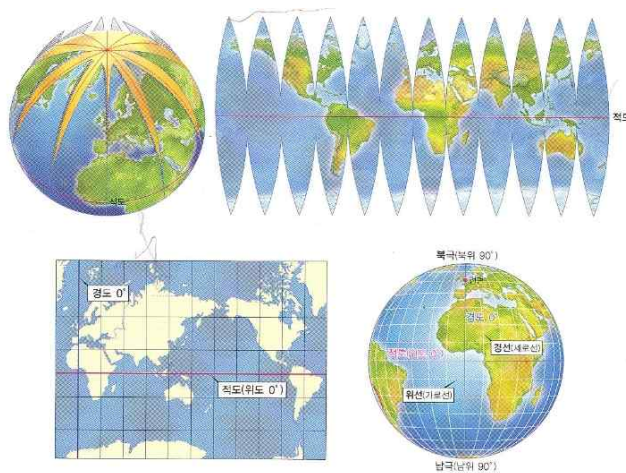
○ 환경 보전이 필요한 나라

<그림3> 인종에 따른 차별이 들어난 삽화

- 지식영역 : 사회, 문화, 경제
- 내용선정기준 : 1. 학생 심리적 측면
-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 : b.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이 단원의 문장 중에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이 식민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이는 식민성의 대표적인 예인 ‘백인=부유함, 흑인=가난함’의 공식이 인식의 틀로서 자리 잡은 경우이다. 위의 사진을 보면 ‘경제 발전이 필요한 나라’라는 제목의 사진에는 흑인 소년이 흙탕물 주변에 있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환경 보전이 필요한 나라’라는 제목의 사진에는 건강한 백인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러한 사진과 제목의 관계를 통해 경제력이 없는 흑인의 무기력한 모습과 부유한 백인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전거를 타며 노력하는 모습이 대비되며 식민성이 강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6학년 2학기 2.1.세계의 자연과 문화, p.53>



<그림4> 세계지도의 다양한 예와 경도, 위도

- 지식영역 : 지리
- 내용선정기준 : 3. 학문·철학적 측면
- 식민성을 강화하는 요소 : b. 식민성의 정당화로 인한 고착화

<그림4> 위에 나타난 지도의 중심에는 대서양과 유럽이 오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지도에는 경도와 적도를 나타낸 지도처럼 우리나라와 태평양이 중심에 오도록 재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도는 서구 중심의 지도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에 제시된 경선과 위선을 설명하는 지도에서는 경선의 기준이 되는 런던에 빨간 점으로 표시해두었다. 이는 세계 공통의 지도의 기능을 배우기 위하여 지도에 나타난 서구 중심의 시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식민성을 강화시키는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내의 삽화와 기술에서도 식민성을 강화시켜버릴 수 있는 교육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식민성의 양상은 주로 서구 중심적 시각의 무비판적인 수용으로 나타난다. 지식영역에서 지리, 문화, 사회 영역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분석되었다. 특히 은연중에 '제 1세계 문화 - 우리 문화 - 제 3세계 문화'의 서열화가 교육내용에 많이 내재되어 나타났다. 그리고 내용선정기준 중 학생의 심리적 측면에 의하여 관련 정보가 생략되고 결과론적인 내용이 제시됨에 따라 식민성은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는 학생들 인식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식민성의 모습을 정당화시키는 근거로써 작용하여 식민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서구 문화는 우리 문화가 진출해야 할 목표의 대상으로, 제 3세계의 문화는 우리 문화에 동화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의 교류와 관련된 사진에는 주로 백인이, 다문화사회의 적응과 관련된 사진에는 주로 유색인종이 그 예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해서 판단해보면 서구 중심 시각을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서구의 경제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과서의 삽화와 기술에서는 서구 중심적 시각과 경제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기술과 사진으로 이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 이데올로기는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와 연결되어 있고, 자본주의는 서구 중심의 근대성이 바탕이 된다.

근대성과 식민성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근대화는 식민화와 연결되고, 근대화와 연결된 세계화는 식민화와 연결된 세계화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중적인 식민성의 모습은 근대화의 수준에 따라 매겨진 순위가 문화의 수준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가 문화의 척도가 되기에는 문화를 구성하는 환경적인 조건이 너무나 다르다. 따라서 문화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근대화의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기준에 타당성이 없으며, 그 기준으로 인하여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포기할 수 없는 측면이다.

앞으로 세계는 점점 좁아질 것이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중요하게 길러야 할 덕목으로 세계시민성을 꼽고 싶다. 그리고 그 세계시민성을 기르기에 적

합한 교과가 바로 사회과이다. 특히 초등학교 사회과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인식의 지평을 열어 가는데 필요한 기초·기본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식민성이란 자본주의와 근대화의 부산물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지식으로 여겨지는 초등학교 교육내용에 내재하고 있는 식민성을 찾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강화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의미가 있는 작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식민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이미 사고체계가 확립되고 배경지식이 많은 어른이 교과서 내에 내재하고 있는 식민성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교육현장까지 연구내용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식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학습되었을 때 식민성으로 어떻게 형성·강화되는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루어지는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참고 문헌 >

- 김복영(2001). “탈식민지시대의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과교육. 제 34호. pp. 58-68.
- 김아영(2010). “세계지리 교과서의 탈식민주의적 분석.” 교육과정연구. 제 28권 3호. pp. 167-191.
- 김영주(2004).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포스트식민성 분석 ‘함께 살아가는 세계’ 단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영천(2006). 탈식민주의와 교육과정 연구. After Tyler: 교육과정의 이론화 1970~2000년. 김영천 편저. pp. 549-585. 서울: 문음사.
- 박경태(2008). 소수자와 한국 사회. 서울 : 후마니타스.
- 박남수(2007). “초등학교 교사들의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 사회과교육연구. 14권 1호. pp. 213-232.
- 박철희(2007). “다문화 교육 관점에 기초한 초등 사회도덕 교과서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제 17권 1호. pp. 109-129.
- 이경원(2001).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서울: 한길사.
- 이미나(2008). “사회과 태도변화 연구결과에 대한 의문 -고정관념에서 오는 편견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 40권 1호. pp. 71-93.
- 이선영(2008). 다문화 교육에 대한 지식사회학적 논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현우(2004). 중학교 사회 교과서 세계사 영역의 서구중심주의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재홍(2006). 교과서 속의 오리엔탈리즘. 박사학위 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 주재홍-김영천(2010). “학교의 국제이해 교육과정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비평.” 교육과정연구. 제28권 3호. pp. 27-55.
- 최현기(2011). 한국 다문화 교육과정 정책의 이중적 식민성 분석. 석사학위 논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원표(2010). “탈식민주의와 교육과정연구: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인식론적 기반을 찾아서. 교육과정연구, 28권 1호. pp. 47-65.
- Banks, J.A., 김용산·김형기 역(2009). 다문화 시민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